

---

# 2020년 제21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5. 15. ~ 5. 2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5. 16.	시청률	0.002

### 【총 평】

“밥이 보인다. 법이 보인다”는 독특한 캐치프레이즈로 법률상식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밥보다 법>의 완속도가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제11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SNS속 거짓말, 허위·과장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한 기획이 탁월했다. 코로나19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SNS광고, 각종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 피해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공한 구성이 돋보였다. 특히,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내용이어서 피해예방의 경각심에 대한 캠페인 효과가 기대되고 수용자 니즈와 시의성에도 적합한 아이템이었다. 또한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높은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는 허위·과장광고의 폐해를 이슈화 한 점도 주목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최근 들어 SNS 상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시의적절한 소재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틈탄 불법 과장광고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 선택 요령을 알리는 아이템이 수용자 니즈를 살렸다.

<밥법드라마> ‘과장 광고로 사기 당했어요’에서는 다이어트 과장광고, 식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피해사례가 언급돼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했다. 최근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높은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 광고비가 고액이라는 점을 알리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지능적 광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법률다락방>은 허위·과장 광고 증거수집 요령, 신고기관, 영업정지, 성분 및 효과 허위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허위·과장 광고는 공정위가 조사하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가 협찬을 받고 광고를 했을 때 허위·과장광고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광고상품 판매업체 사업자가 처벌을 받는데 식품의 허위·과장광고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식약처 등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가 소개돼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밥상머리 차트>는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퀴즈식으로 풀어 집중도를 높이고 이해를 도왔다. SNS광고의 법적 제재 가능 유무, 거짓광고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여부, 유명인과 인플루언서의 책임 유무 등 허위·과장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 【참고사항】

**05:40** 자막사용에 있어서 ‘보상’과 ‘배상’을 여러번 혼용했는데, 불법 위법행위로 빚어졌을 경우는 손해 배상(賠償)이고, 적법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인 경우 보상(報償)책임이 맞음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5. 16.	시청률	0.306

### 【총 평】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는 전남 진도의 봄 풍경을 흠뻑 담아낸 '남도 풍류의 맛과 멋'을 방송했다. 진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우리가락 판소리사랑, 진도 바닷가가 주는 풍요로움, 그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신호연 연날리기의 아이টে으로 진도 지역을 정체성을 소개하였다.

'진도 쌍계사'와 '운림산방'을 소개하면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한껏 살려줬고, '전통연 제작가의 공방'에서 연을 날리기 장면도 담았다. 진도가 풍류의 고장이고, '소리로 유명한 진도 지산면 소포리 주민들을 취재했다. 콩을 따면서 노래도 자연스레 부르고 함께 모여 토속민요를 배우는 모습들이 등장했다.

지난 방송부터 문화해설가를 프리젠티어로 선정하였는데,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잘 알려지지 않은 현장문화 등 역사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구성 및 내용】

전남 진도의 '남도 풍류의 맛과 멋'에서는 푸른 산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쌍계사와 운림산방,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의 소리의 고장, 밭에서 완두콩을 따면서 입을 연 소리꾼의 '흥그레 타령'과 '진도아리랑' 등 구성진 가락의 사연을 전했다. 소리꾼 할머니가 완두콩밭에서 콩을 따고 동네 할머니들과 이것을 같이 삶아 먹고 자신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전했고, 진도 아리랑을 부르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할머니의 소리도 좋았지만 인생 이야기를 먼저 하고 소리를 들려주니 조금 더 찡하게 와닿았다. 완두콩밭에서 들려준 '흥그레 타령'도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독특한 감동이 있었다. 진도소리를 하는 주민들이 "노래만 부르면 성가신 일이 없고 속이 편안해진다"고 강조했고 '집에서 하는 놀이로서의 소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 진도군 군내면 나리가 보여주는 다시마와 전복 양식장, 다시마 진미 시식, 명량대첩의 흔적이 남아있는 진도 앞바다 풍경과 치마당가리 전통연(신호연) 장인과 나눈 조상의 지혜와 연 사랑을 소개하였다.

연이라는 자체가 요즘에는 희귀하고, 전쟁시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연이 있다는 사실도 생소했는데 장인의 작업실로 이동해서 상세히 소개해서 흥미로웠다. "연은 임진왜란 때 통신용으로 사용됐고 그래서 각각의 연이 이름과 내용이 다 있다"고 소개하면서 다양한 연들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 온 연과는 '모습이나 이미지'가 달라 새로움을 남겨주었다.

진도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복양식의 모습과 전복요리의 종류별 소개 등은 맛의 향기를 더하였다. 또, 진도 사람들이 꼽는 1등 특산품 전복요리의 다채로움을 선사하였다. 진도의 풍미와 시원하고 청명한 봄 풍경을 제대로 그려냈다.

프로그램	월 좀 아는 의사 K닥터		
방송일자	2020. 5. 17.	시청률	0.127

### 【총 평】

‘아프면 거지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모든 것’을 주제로 ‘문재인 케어’의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의료복지 혜택을 살펴보고, 의료복지 정책에 대해 정부의 방향성을 잘 제시한 탁월한 아이템이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인해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현실임을 강하게 느꼈고, ‘안전한 대한민국과 적절한 정책을 실감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 프로그램의 강점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시청자들의 건강의학정보 사각지대인 건강정책을 다룬다는 점에서 KTV 채널의 차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인지도 높은 이지애 전문 방송인을 진행자로 내세워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이끄는 데 성공하였다. 셋째, 주제와 내용 구성 부문에서 살펴보면 어려운 의학 건강 정보를 짧은 시간에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서 알기 쉽게 전달한다는 점이다. 넷째, 시청자 눈높이의 강연 내용, 강연자의 사전 준비 철저함 등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건강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 【구성 및 내용】

제4회 방송 주제인 ‘아프면 거지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모든 것’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의료비에 관한 것으로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깨알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개인비용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큰 복지 혜택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1989년에 시작된 전 국민의료보험이 2018년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들을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취약계층 지원, 선택치료비 삭제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을 차례로 설명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최대 효과라고 강조했던 노인 의료비와 장애인 지원에 관한 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이 부분은 젊은 세대나 비장애인들이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 좋았고 임플란트나 난임시술 지원 등 대상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도 잘 설명이 되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장점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에 따른 세금의 부담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우려를 설득력 높게 설명해 공감도가 높아졌다.

‘아는 만큼 튼튼해지는 지식 강연’이라는 슬로건이 흥미롭다. 건강과 의학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충족시켜주는 기획물이다. 지금까지 출연한 강연자들 면모를 살펴보면 전문성은 물론 강연 핵심 전달력도 뛰어나다. 또 사전 강연 준비를 철저하게 한 덕분에 강연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리가 잘 된다.

프로그램	웹툰다큐 멋진 공무원		
방송일자	2020. 5. 17.	시청률	0.045

### 【총 평】

코로나19 속 희망을 나른다 경북 우정청 2부는 코로나19 진앙지인 대구 경북지역의 우편물 물류센터의 심장이라 불리는 경북 우정청 대구우편집중국 직원들의 24시간 우편물과의 전쟁 활약상이 집중 조명돼 공직자들의 책임감, 사명감, 열정과 헌신을 국민들에게 생생히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획의 의미가 컸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위기 속에서도 긴급생계자금 특급우편물 배송과 4·15 선거우편물 배송 등 공적서비스를 완벽히 수행한 점이 '멋진 공무원'의 롤모델이 되었다.

특히, 마감을 앞두고 벌어진 긴급상황, 벨트 전달사고에 대한 신속한 복구상황 등 긴박한 상황에 대처해 빠른 시간내에 응급복구로 정상화하는 직원들의 위기대응능력과 순발력을 보여준 구성이 몰입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마감시간 이후, 끝나지 않는 우편집중국의 시간을 공개해 직원들의 열정과 노고를 부각한 점도 관심을 모았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와 총선 등의 영향으로 우편물이 폭증했던 시점에 대구우편집중국 사람들의 하루를 따라 갔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관심이 가는 소재였고 특히 공적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우편물 집하 및 분류, 배송 등의 작업은 시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되기 위해 1분 1초가 시급하다. 이에 대구우편집중국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작업이 이뤄진다.

국민을 위한 공적서비스 업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편집중국에 공적 업무 책임이 부여되었다. 공적마스크 판매는 물론 긴급생계지원금이 든 우편물의 배송도 담당하고 있다.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되는 긴급생계자금은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으로 배송이 이뤄지며, 카드가 들어있어 수작업이고, 긴급생계자금이라 익일배송이 원칙이다.

마감 20분을 앞두고 우편물 라인이 멈춰 급하게 원인을 파악하니 소포가 기계에 걸려서 일시 정지시켰다. 이렇게 우편물 하나에 작업라인이 멈추고 아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가벼운 사건 말고도 가끔은 우체국 트랙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비차가 출동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배송지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체국은 물류부터 배송까지 시간과의 싸움이다.

끝나지 않는 우편집중국의 시간, 우편집중국은 계속 돌아간다. 먼길 떠나갈 준비를 한 소포들이 차곡차곡 정리된다. 한편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될 우편물들이 있다. 이런 폐기 우편물들은 보관기간이 경과되면 경매로 처리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황을 잘 묘사한 영상이 특징적이고 편집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뤄졌다. 특히 마감 시간의 긴박감을 컨베이어 영상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표현한 영상은 특징적이었다.

프로그램	KTV 특별기획 '미완의 진실 5·18'		
방송일자	2020. 5. 18.	시청률	0.117

### 【총 평】

KTV 특별기획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미완의 진실 5·18'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10일간 벌어진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담았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자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작이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공수부대의 잔혹한 시민 폭력과 무차별적인 총기 진압으로 광주·전남 희생자는 8천여 명으로 1950년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을 정도로 정치사의 비극이요 역사적 큰 사건이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잔잔하게 그려냄으로써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 【구성 및 내용】

KTV 특별기획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미완의 진실 5·18'은 당시의 경험자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경험담을 비교적 담담하게 그려내었고, 작년에 구성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이 많이 부각된 점이 인상적이다.

첫 번째 주인공 강성택씨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민군에 합류해서 각종 고초를 겪었는데, 5.18 자유공원에 설치된 인형 모형들을 디테일하게 따라가면서 촬영해 당시의 공포를 그대로 전달했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몰입력이 높았다.

두 번째는 양재학원에서 공부하다 5.18 항쟁에서 가두방송을 맡아 많은 사람들을 현장으로 이끌어낸 차명숙씨의 사연을 소개하고 그 이후 간첩으로 몰려 당한 고초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특히, 가두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도 언급되어 인간적인 고뇌에 많이 공감되었다.

세 번째는 당시 택시운전사로 차량시위에 참가했던 행기씨가 소개됐는데 차량시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내용이 아니라 새롭게 듣는 내용이 많았다.

네 번째는 아들을 잃은 길자를 통해 아들이 사망하던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고 그 이후 유족회 설립 활동과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를 소개했다. 특히, 아들 대신 투사로 살고 있는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 가슴이 뭉클했다.

마지막으로 선전물 홍보 업무를 맡아 사건을 알린 향득씨의 사연과 너무나 뜻깊은 역사의 현장이지만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5.18 사적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고, 향득씨를 따라 10여명으로 구성된 당시 고고생 시민군 모임도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었다.

마무리 부분에서 2019년 말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5.18 진상규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피해자들의 용서가 있어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 특히, 시민군은 군사정권에 의해 잘못 기록된 북한군 600명이 아니라 광주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리했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방송일자	2020. 5. 19.	시청률	0.009

### 【총 평】

코로나19 관련뉴스 6개 아이템을 앞부분에 전면 배치해 뉴스 집중도를 높인 점이 강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WHO총회 기조연설을 톱으로 내세워 K-방역의 우수성과 함께 한국의 위상을 비중있게 다뤄 자긍심을 높였다. 고교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 내용에 대해 관련 단신과 리포트를 라인업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편집도 시의 적절했다. 재난지원금 관련 아이템을 뉴스와 대담코너에서 다룬 연계성과 심층성이 돋보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 변화를 소재로 한 '클릭K'는 뉴스 속 뉴스로 코로나19 관련 뉴스와의 연계가 잘 이뤄졌고, 정부의 2020 재난대책을 다룬 토크는 올 여름 폭염과 태풍이 빈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

### 【구성 및 내용】

- 총리 주재 국무회의...대통령령안 등 의결  
오늘 국무회의에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 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이번 주는 '5부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이 이번 주부터 가능해진다.
- 어제부터 2차 코로나 대출, 신청 현황과 기대효과는?  
소상공인 대상 은행에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하였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대출 한도는 1,000만 원까지이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재택근무, 회사에서 장소 제한할 수 있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중일 경우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다른 곳에서 근무할 시 회사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
  - 고용유지하는 기업, 노사 양측에 세제혜택?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유지하면 노사 양측에 세제혜택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며 다만 고용유지에 대한 과세특례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 구직촉진수당 받으면 복지급여 못받는다고?  
취업지원금을 받을 경우 복지급여 중복 수급이 어렵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고용부는 복지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더라도 복지급여 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주52시간제, 코로나 사태 이후 보완책 필요?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이 출현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이미 확대하였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19 관련 인가비중이 전체 1,366건 중 1,077건으로 8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5. 21.	시청률	0.006

### 【총 평】

현장 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32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24시간 고군분투한 각 부처들의 모습을 담은 '코로나19에 맞선 기록들, 정부의 노력은 계속된다!'를 방송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해서 미국까지 50여개국에 진단키트가 수출되고 있고 지금도 방심하지 않고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 관리의 생활화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외국인들은 "한국의 대처는 정말 빨랐고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관된 행정을 펼친 점이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데 주효했고, 24시간 운영체제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 【구성 및 내용】

지난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특집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방송들 중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정리하고 거기에 2차 감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수고를 알리고 감사를 표한 장면들이 눈에 띄었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

신천지 집단감염 이후 이태원 2차 감염이 시작된 만큼 그 후속처리에 관한 내용을 도입 부분에 눈길을 끌었다. K방역의 모범사례로 드라이브 스루 등 방역의 실태를 외국인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2차 감염사태에 대해서는 신천지 때보다 속도감 있게 대응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대응 시스템상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범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래프로 그 추이를 입증한 점도 설득력이 있었다.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 자료를 함께 준비한 점도 꽤 신뢰감이 들었다.

선도적 방역시스템으로 국방 지원 시스템, 진단 키트 등 발빠른 대응 시스템을 강조하고 종합상황실 등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 K방역의 진단키트 등 세계적 공유 요청을 다루고 자가격리자 관리 시스템과 종합상황실의 모습은 별로 공개된 적이 없어 이 부분은 참신하게 다가왔다. 특히, 의사의 인터뷰 등 우리의 새롭고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에 대한 찬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해외입국자 관리는 입국자를 위한 자가격리 시스템과 국민안심병원의 내부를 소개하고 그 효율성을 강조했다. 입국자의 자가격리 상황을 소개하는 부분이 눈길을 끌었고, 임시 상황시설과 국민안심병원 내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소방청 위기대응 100일 간 이송 및 24시간 응급대처를 비롯해 자가격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청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등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일이 큰 힘을 발휘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생활 속 방역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습관화에 대해 소개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 등도 함께 홍보했다. 특히, 등교수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했다.